

극단 청춘, 광주연극제 3관왕

가족에 그린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 최우수작품상·연기상·신인연기상

극단 청춘의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가 제32회 광주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해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에 광주대표팀으로 참가하게 됐다. 극단 청춘은 최우수작품상과 함께 최우수연기상(노희철), 신인연기상(김민성)까지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극단 청춘의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 (김광택 작·오설균 연출)는 간암 말기의 아버지가 간성훈수로 고통을 받으며 곳을 헤맸다고 했다는 작가 김광택의 자전적 이야기를 각색한 것으로 병든 아버지를 통해 바라본 눈물겨운 가족애를 그리고 있다. 한국연극협회 광주시지회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지역을 대표할 연극 작품을 뽑는

제32회 광주연극제를 열었다. 이번 연극제에는 극단 '진달래피네', '까치날', '청춘', '시민', 'DIC' 등 5개 팀이 참가해 경합을 벌였다. 심사위원인 정두영 전북연극협회 회장과 조민철 전북연극협동조합 이사장, 문종근 연출가는 심사평에서 "이번 광주연극제 심사는 극단 경력이나 연출자, 출연진의 이전까지 능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진행됐으며, 당일 관객 앞에서 선보여진 공연의 완성도가 절대 심사기준이 됐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또 "올해 출품작들이 몇 년 전 심사 당시 작품들과 비교해 큰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한 결과를 보여 유감스럽지만 광주연극의 저력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측면이 감지되어 반



제32회 광주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극단 청춘의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 공연 모습.

갑기도 했던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광주연극제에서 무대미술상은 극단 시민 ('조용한 세상')의 이현, 신인연기상은 극단 까치날 ('표- 신하가 황제에게 바치는 글')의 김장준, 극단 청춘 김민성, 극단 진달래피네 ('육새인가, 육새인가') 조혜수가 수상했다. 최우수 연기상은 극단 청춘의 노희

철, 극단 DIC ('피는 꽃 흐르는 물이로세') 임흥석이, 연출상은 극단 시민 ('조용한 세상') 김민호가 수상했다. 한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극단 청춘은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대전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에 광주대표팀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연수 기자

광주극장, 봄맞이 신작 개봉



'플로리다 프로젝트'

절찬 상영 '플로리다 프로젝트' · 15일 '120BPM'

광주극장은 관객들의 가슴을 적실 새로운 영화 2편으로 산뜻하게 봄을 맞이한다.

개봉 전부터 SNS 등을 통해 큰 이슈가 됐던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지난 주말부터 절찬 상영 중이다. 꼬마 '무니' 역을 맡은 브루클린 프린스의 능청스런 연기와 사랑스런 모습에 네티즌들은 수천 개의 댓글을 달았다. 특히, 먹방을 방불케 하는 장면들은 '엄마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6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의 톤을 조절하며 카메라 동선까지 계산하는 등 베테랑 배우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줬다.

이 영화는 디즈니 월드 건너편 '매직 캐슬'에 사는 무니와 친구들의 신나는 무지개 어드벤처를 그린 작품으로 섬세한 연출력과 화려한 색감의 영상미, 감성적인 스토리가 더해졌다.

무니와 친구들의 축제 같은 일상을 통해 재미와 웃음을 선사하며, '매직 캐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단면을 통해 눈물을 자아내기도 한다.

선 배커 감독은 공동 각본가이자 제작자인 크리스 비고흐의 얘기를 듣고 영화를 제작하게 된다. 지난 2011년 디즈니 월드에 가는 도중 혼잡한 고속도로 옆에서 놀던 아이들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디즈니 월드 건너편의 그늘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아이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곳의 아이들은 경이로움과 순진무구함, 끝없는 가능성, 모험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플로리다의 뜨거운 햇살처럼 찬란 아이들의 동심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었다. 그 세상은 곧 '매직 캐슬'이란 이름으로 영화화됐고, 두 사람은 잊고 지낸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관객들 역시 향수 가득한 아득함을 느낄 것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완성했다.

선 배커 감독은 "관객들에게 디즈니 월드 건너편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함께 도우며 살아야 하는 책임에 대한 메시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브루클린 프린스 역시 플로리다의 또 다른 '무니'를 위해 기부 활동에 참여하는 등 미국 사회에 숨은 흑인의 문제를 재조명하고 있다. 오는 15일 개봉하는 '120BPM'은 1990년대 유행한 하우스 뮤직의 사운드 리듬이기도 하면서 사랑에 반응하는 심장의 속도를 뜻하기도 한다. 1989년 파리, '액트업파리' (ACT UP PARIS) 활동가들은 에이즈의 확산에도 무책임한 정부에 대항한다. 새로 단체에 가입한 '나똥'과 '선'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뜨겁게 사랑하며 투쟁한다. 로빈 캄필로 감독은 '액트업파리'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80년대, 성소수자로 에이즈의 공포 속에서 살아온 감독은 에이즈 환자들이 사회의 무관심함과 부족한 의료혜택, 가족과의 단절 속에 죽어가고 있다는 TV 인터뷰를 영향으로 '액트업파리' 활동을 시작했다. 이 영화는 픽션이지만, '액트업파리' 활동가들의 토론 장면, 거리 활동 장면에서의 긴장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해 명장면을 탄생시켰다. 그 덕에 30여 년 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스토리와 감정에서 생동감이 느껴진다. 하우스 뮤직을 즐기는 클럽 장면이 상징적인 동시에 감각적으로 표현돼 당시 활동가들은 그 시절을 곧바로 떠올릴 수 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지미 서머빌의 음악은 팝음악 역사상 최초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의 노래이기도 하다. 지미 서머빌은 '액트업파리' 기금 마련 콘서트에 참여하기도 했다. 로빈 캄필로 감독은 "신나면서도 구슬픈 분위기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이 음악은 '액트업파리'의 슬로건이었던 '댄싱=라이프'의 의미와도 맞닿는다"고 전했다. /이보람 기자

'봄의 선율을 노래하다' 15일 이해정 바이올린 독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이해정이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이해정은 예원예고와 서울예고를 거쳐 연세대 음대를 4년 전액장학생으로 졸업한 후, 독일의 쾰른 국립음대에서 이고르 오짐(Igor Ozim)을 사사했다. 맨해튼 음대석사 및 전문연주자 과정을 장학생으로 졸업했다. 일찍이 한국일보콩쿠르, 이화경향음악콩쿠르 등에서 입상했으며, 서울예고 재학 중 동아음악콩쿠르 1위 입상을 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난파음악콩쿠르 대상, KBS신인음악콩쿠르와 조선일보사 주최 신인음악회 출연, 맨해튼음대 concerto competition 우승, Bergen Philharmonic competition 입상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2005년 교향악축제에서 협연자로 선발되어 대구시향과 협연한 바 있으며, 부천시향, KBS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제주시향, 천안시향, 강남교향악단, 충남교향악단, 맨해튼음대 오케스트라, 함부르크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국내외의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바 있다. 독주회와 실내악 연주로 끊임없이 정중과의 교감을 이어가는 그는 세종문화회관 유망신예 초청 독주회를 비롯해 예술의전당 실내악 축제 등 여러 페스티벌에 초청돼 연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으며, 코리안 심포니, 인천시향, 충남교향악단 등의 오케스트라에서 객원 악장으로 연주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페스티벌앙상블, 아베그트리오, 디앙상블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독주회에서는 모차르트 소나타 18번, 바흐 파르티타 1번, 슈트라우스 소나타를 연주할 예정이며 전주대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피아니스트 이주웅 교수가 함께 한다. 티켓은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이며 유·스퀘어 문화관 홈페이지와 인터파크에서 예매 가능하다. 문의 062-360-8437. /이연수 기자

피아니스트 한상일&바이올리니스트 이우일

젠틀듀오 리사이틀

오늘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국내와 해외 콩쿠르를 석권하고 세계 무대에서 기량을 인정받은 피아니스트 한상일과 바이올리니스트 이우일이 '젠틀듀오 리사이틀'로 첫 무대를 선보인다. 13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크고 작은 무대에서 활발히 자신의 음악을 알리고 있는 피아니스트 한상일과 바이올리니스트 이우일은 이번 듀오 무대에서 베토벤, 야나체프, 프랑크라는 유명하고 잘 알려진 소나타와 클래식 음악만이 선사할 수 있는 편안함과 여유,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가벼운 소품곡들로 구성된 젠틀듀오만의 특별함을 소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소개할 베토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은 젠틀듀오만의 개성을 입혀 '젠틀듀오 베토벤'을 관객에게 소개한다. 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지녀 전체적으로 어두움이 가득한 야나체프 소나타에서는 날카로운 바이올린 선율의 맹렬



이우일

함과 피아노의 담담한 멜로디가 만나 극적 효과를 더하는 앙상블을 선사한다. 마지막 곡인 프랑크 소나타는 약장별로 '만남, 불화, 이별, 재회'라는 스토리를 담고 있어 각 악장의 뚜렷한 주제를 맞출 수 있는 드라마 같은 재미가 있는 곡으로써 젠틀듀오의 최고의 연주력으로 작품의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할 예정이다. 티켓 가격 전석 3만원. /이연수 기자

http://www.party-food.co.kr

"음식출장 행사 25년 전통" 파티외식산업

칠순잔치, 팔순잔치, 약외결혼식, 성당교회 결혼식 전문업체 / 시내, 시외 출장 뷔페 전문

음식물 고객 배상 화재보험 10억원 가입업체
단체도시락 제조 납품, 단체식사 병원 / 기업체 / 학교 구내식당 - 위탁운영, 위탁급식
※ 식탁, 의자, 회갑·칠순 상차림, 케익, 프랑카드 서비스 함. ※ 행사장비 지원 (밴드, 사진, 비디오, 각설이 출장 가능함)

전문 파티 플래너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 보세요.
☎ 무료상담전화 080-226-0085 / 010-4601-3222

※ 소량이라도 약속한 시간전까지 배달납품 합니다.

심야 보일러 히트펌프

심야 보일러 1대당 200~250만원 설치비 보조(한전)

저렴한 전기요금
고효율 인버터 제어로 전기요금을 기존 심야전기 보일러 대비 전기요금 약 60% 절감시켰습니다.

고효율 인버터 제어

전기요금 계산 기준 = 소비전력(kWh) = 10시간/일 × 30일

운전 비용 절감
고효율 인버터 기술을 적용하여 등유대비 약 80%, 일반전기 보일러 대비 약 70%, 도시가스 대비 약 60% 이상 절감됩니다.

등유 대비 절감 비용

80% 절감, 70% 절감, 60% 절감

등유 보일러, 일반 보일러, 도시가스 보일러, 히트펌프

■ 연료별 발열량 (1KW당) 비용절감율
* 등유, LPG는 한국석유공사 (14. 01월 요금 적용)
LNG는 한국도시가스협회(서울시 기준) 적용
일반전기는 일반요금(간) 저전압 기준 기본요금 반영
심야전기는 13. 11월 요금 적용
공기열 전기보일러는 정격년방 기준

해드림에너지 010-2633-0890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295 동림B/D 2층